



제18회 MBC 건축 박람회 건축 인테리어 정보를 한눈에

미래의 건축 주거 문화 구현을 목표로 박람회 전문 기업 동아전람이 주관한 제18회 MBC 건축 박람회가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SETEC)에서 개최됐다. 건축 자재, 인테리어, 가구, 홈 네트워크 등을 선보여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미리 볼 수 있는 전시회였다. 참신하고 다양한 건축 자재·인테리어 및 전원 주택을 볼 수 있는 MBC 건축 박람회로 들어가보자.

에디터 | 이기원 · 사진 | 고하진



지난 8월 17일부터 5일간 대치동 SETEC에서 제18회 MBC 건축 박람회가 열렸다. MBC가 주최하고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 (사)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박람회는 건축 자재, 인테리어, 전원 주택, 건축 정보, 건축 리노베이션 등에 관련된 것들이 전시됐고, 주택 개보수 및 리모델링, 기타 건축 주택 관련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330여 개 업체가 참가하고, 3000여 아이টে이 전시된 이번 박람회는 '동아전람회 사이버 건축 박람회'와 병행해 동시에 개최됐다. MBC 건축 박람회는 건축 자재전, 인테리어전, 건축 리노베이션전, 전원 주택전, 조명 산업전, 조경 산업전, 건축 공구전, DIY 산업전, 건축 정보전으로 구성됐다. SETEC의 3개 전시관으로 나누어 전시됐으며, 옥외에선 전원 주택 관련 업체와 리모델링, 방수 단열 업체가 선을 보였다.

주택 전시 위주였던 기존 박람회와는 달리 이번 박람회는 조경과 겨울철 대비를 위한 벽난로가 주를 이뤘다. 관람객들은 이동식 목조 주택 등에도 큰 관심을 보였는데, 이동식 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지은 후 현장에 그대로 옮겨 설치하는 집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주말 별장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옥외에는 조경과 관련한 토피어리나 원두막, 캠핑카 등이 전시되었다. 실내에는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림처럼 선명한 도자기 타일이나 나만의 인테리어를 만들 수 있는 냄새 없는 천연 페인트, 황토로 만든 벽돌 등 신기하고 예쁜 제품들이 많았다.

이번 박람회는 최신 건축 인테리어 자재부터 신소재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것들이 출품되긴 했지만, 매년 유사한 것들도 눈에 띄었다. 일반 건축 분야 전시 업체는 점점 줄어들고 주로 전시와 판매를 목적으로 한 업체들이 들어선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MBC 건축 박람회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가 몰렸고, 마지막 날까지 최신 건축 흐름에 관심 있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



1 대치동 SETEC에서 지난 8월 17~21일에 열렸던 제18회 MBC 건축 박람회. 2 가구, 인테리어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관람객들. 3 직접 만든 타일을 관람객들이 만져보고 있다. 4 곤충, 물고기 모양으로 된 조명들은 신기하고 아름다웠다. 5 호텔이나 음식점에서 봤음직한 화려한 조명들. 6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가 몰린 MBC 건축 박람회. 7 실외에는 이동식 주택과 조경, 원두막, 캠핑카 등이 전시돼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